

사랑의 지휘자

송나라 재상 범문정의 젊었을 때의 이야기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던 그가 어느 날 길가에 앉아있는 점쟁이에게 다짜고짜 자신의 운세를 물어 보았다.

"제가 이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작스런 젊은이의 질문에 점쟁이는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이리저리 살피더니 말했다.

"음, 자네의 관상으로는 어렵도 없네 그려. 一_一 ;"

범문정은 크게 실망했지만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럼 의원 노릇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점쟁이는 의아하다는 투로 물었다.

"아니 자네의 희망사항이 어찌해서 금방 재상에서 의원으로 내려 앉는가?"

"예, 저는 여하튼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을 살기 좋게 다스리려면 우선 재상이 되고 할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세간에서 천하게 여기고 있는 의원이라도 되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주려고 그러합니다."

이 말에 점쟁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자네는 결국 재상을 하겠구먼."

범문정이 이 말을 듣고 이상하여 다시 물었다.

"아니 어떻게 금방 변하는 점괘도 있습니까? 좀 전에는 어렵도 없다더니 이제는....."

그러자 점쟁이가 엄숙하게 말했다.

"관상에는 골상이 색상만 못하고 색상이 심상만 못하다는 말이 있네.

자네는 골상이나 색상으로 보아서는 재상 근처에도 못 갈 위인이지만

그 심상에 어려있는 넉넉한 사랑을 보아하니 결국 재상이 될 거라는 말이네."

많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선이 그어져 한계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능력일 수도 있고, 사교력일 수도 있고, 재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사랑'만은 못하다고 합니다.

사랑의 지휘자형 리더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愛のコンダクター

宋の宰相である范文程の若い頃の話だ。

決まった職業もなしにあっちこっちを流れた彼がある日、道端に座っている易者（占い師）にいきなり自分の運勢を聞いて見た。

“私がこの国の宰相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でしょうか、できないでしょうか？”

突然の若者の質問に易者は目をコムポックコムポックしながらあちらこちらに察したら言った。

“うーん、お前の観相では難しいな。--；”

范文程は大きく失望したがもう一度問った。

“それでは議員役でもできますか？”

すると易者は可笑しいように問った。

“いやお前の希望事項がどうしてすぐ宰相で議員になるのか？”

“はい、私はとにかく民を救援する事をしたいのに世の中を生きやすく治めようとすればまず宰相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しそれができなければ世間で卑しく思っている議員でもなって民たちの苦痛を減らしてあげようと思います。”

この言葉に易者はにっこり笑いながら言った。

“それではお前は結局宰相をするね。”

范文程この言葉を聞いて変に思いまた問った。

“いやどんなにすぐ変わる卦もありますか？先程にはどんでもないと言ったのに今は.....”

すると易者が厳肅に言った。

“観相には骨相が色相より良なくて色相が心相より良くないという話があるのね。

君は骨相や色相で見ても宰相近くにも行けない偉人だが

その心相に滲んでいる豊かな愛を見るから結局宰相になるつもりという言葉だね。”

多くのことはもう決まっていて、線が引かれて限界を描いたりします。

それら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力は能力であるとも言えるし、思考力であるとも言えるし、富力であるかも知れないです。

しかしその何も‘愛’よりは良くないと言います。

愛の指揮者形リーダーならすべてのもの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